

#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Couple and Elderly Single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여윤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uh, Yoon-Kyung

### 〈Abstract〉

Determinants of consumption patterns of elderly couple and elderly single were investigated using the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the elderly couple and single in terms of monthly expenditures and average budget shares of individual consumption items. Consumption functions of individual items were estimated using double-log function. Major determinants of consumption functions were income, overspending behavior,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er, and net worth for both groups, householder's job status and city residence mainly for elderly couple, and age of householder mainly for elderly single. In addition, income elasticity of elderly households was larger than net worth elasticity for all consumption items.

▲주요어(Key Words) : 노인독신가계(elderly single household), 노인부부가계(elderly couple household), 소비패턴(consumption patterns), 소비지출함수(consumption function), 더블로그함수(double-log function)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해 볼 때 5.1%에서 10년 만에 무려 2.1%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9년(14.4%)과 2026년(20.0%)에 각각 '고령사회(Aged Society)'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전망이다(통계청, 2001b).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불과 1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속도는 세계의 그 어느 선진국보다 가장 빠른 추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또 하나의 중요한 추세는 노인만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계의 증가이다.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단독가계가 1990년에는 28%였으나 2000년에는 35%, 2020년에는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삼성금융연구소, 2000). 출산율의 감소와 의학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핵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가족구조의 변화, 자녀들의 책임의식 감소 등으로 노인인구 중 노인단독가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대별 문화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자녀들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노인단독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따라서 노인단독가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단독가계의 증가는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형태

\* 주저자: 여윤경(E-mail: yuhyk@ewha.ac.kr)

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성지미, 이윤정, 2001; 심영, 2000).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세는 소비시장에서 경제력 있는 노인소비자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품을 자녀가 대신해서 구매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의 80% 이상이 주택, 통장, 연금증서 등의 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전체 민간소비에서 고령자 소비비중이 30%에 이르며 전체 상업광고의 20%에 고령자가 등장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즉 과거에 비해 노인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독립된 소비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는 앞으로 실버 소비자집단의 소비행태와 소비특성 및 수요의 정확한 파악이 실버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상태(economic status)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소득, 소비, 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일인당 소득, 일인당 소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Miller & Montalto, 1998),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가계의 실제 경제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총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더 나은 지표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총소비지출은 소득에 비해 일시적인 요소(transitory factors)에 의해 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 혹은 은퇴기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소득에 관한 연구보다 노년기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평가하는데 더 정확할 수 있다(Wang, 1995).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행동이나 소비패턴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족구조이며, 이러한 변수는 주로 가족원 수의 형태로 소비지출함수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배미경, 1998; 성영애, 양세정, 1997; Rubin & Koelln, 1996; McConnel & Deljavan, 1983). 이것은 노인가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노인기에 겪게 되는 배우자 사망이라는 커다란 심리적, 경제적 사건을 고려해 볼 때 노인가계의 소비행동이나 소비패턴의 차이를 조래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유무 혹은 결혼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결혼상태 혹은 배우자 유무는 노인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소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것은 소비지출행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심영, 2000). DeVaney (1995)와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의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배우자 사망은 노인집단의 소득불평등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배우자 유무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결정하고 나아가 소비지출구조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보지 않고 소비요구(consumption needs)수준의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두 집단, 즉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인가계로 구분하여 소비패턴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노인가계의 특성과 이에 따른 소비요구수준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노인의 경제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실버 산업과 실버 마케팅에서도 노인가계의 집단별 소비패턴에 대한 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관련 선행연구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노인가계의 소비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를 노인가계의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들과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함수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노인가계의 소비패턴 연구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한 성영애와 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간에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소비항목은 피복신발비, 교육,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로 나타났다. 세가지 지출비목 모두 비노인집단의 평균 소비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에 차이가 있었던 소비항목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구성비 비중이 비노인가계의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난 소비항목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9가지 소비항목의 지출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가족수, 가구주 연령, 주택소유여부 등이 대부분의 소비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특성이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양세정(2000)의 연구에서 1인당 소비지출규모에 있어서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는 비목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로 나타났으며, 지출구성비에 있어서 노인가계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소비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활동과 관련이 높은 피복신발비, 교통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계와 노인부부가계가 소득과 소비지출에 있어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노인단독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은 368,244원에 불과한 반면에 노인부부가

계의 총 소비지출액은 903,523원으로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계 노인소비자를 유배우 노인가계, 남자 노인가계, 여자 노인가계로 나누어 분석한 심영(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 소비지출의 세 측면에서 모두 유배우 노인가계는 남자나 여자 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복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선 노인단독가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적었고, 비목별 소비지출에서 필수적인 지출비목인 식료품,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이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소비지출을 근거로 노인가계의 유형별 경제적 복지를 비교해보면, 총 소비지출액의 규모면에서 여자 노인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비, 집세, 광열수도비 등 필수품적 성격을 띠는 비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었고 교제비와 같은 비필수품적 성격을 띠는 비목에는 적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었다.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소득, 지출, 자산의 모든 측면에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보다 낮았으며 경상소득과 지출 모두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Wang(1995)은 60세 이상의 노인가계를 여성독인가계, 남성독인가계, 노인부부가계로 구분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더욱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가장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집단은 남성독인가계였으며 가장 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집단은 여성독인가계였다. 남성독인가계와 부부가계의 불평등도는 여성독인가계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노인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에는 틀림없으며, 이는 가장 단순한 복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지출의 규모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가계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가계의 개념 속에는 노인 혼자 사는 가계, 노인부부만 사는 가계, 혼자 된 노인과 자녀가 함께 하는 가계, 노인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계 등 다양한 가족구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된 채로 연구되어온 경향이 강하며, 노인들만 사는 노인단독가계(노인독인가계, 노인부부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노인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결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이들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해 내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계집단을 세분화하여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지출의 패턴과 행태는 가족구조와 가족원 수 등의 영향을 상당히 강력하게 받는 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가족형태를 세분화하는 것이 정확한 소비패턴 규명과 소비함수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함수

가구주의 연령은 노인가계의 소비행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의 소비지출함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고령일수록 보수적인 소비패턴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 2002),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김순미(1998)의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55세-64세인 노인가계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계에 비해서 총소비지출규모는 크게 나타나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소비지출 규모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Williams과 Zhou(1997)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계를 65세-74세, 7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가계의 평균지출액수가 55세-64세의 시기(은퇴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다. 55세-64세의 시기에 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감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 65세-74세의 가계는 55세-64세 가계의 소비지출의 71%였고, 75세 이상의 가계는 50%였다. 55세-64세의 은퇴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감소를 보인 비목은 보험 및 연금 지출이었고, 그 다음이 교양오락비였다.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주거비도 많이 감소한 비목이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가계의 취업상태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세정(200)의 연구에서는 노인가계를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로 구분하여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노인가계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노인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73%였던 반면 비취업노인가계는 102%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소비지출 측면에서 볼 때 세 집단 중에서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여유 있는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ubin과 Nieswiadomy (1994)는 1986-1987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계를 취업가계와 은퇴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소비지출패턴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취업여부는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을 비교 분석한 김연정(1998)의 연구에서는 취업노인가계가 은퇴노인가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비목은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육비, 전기통신 및 연료비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퇴노인가계의 근로소득의 단절 및 축소가 정규적인 향상소득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화에 대한 필수여부에 따라 지출배분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세정, 강미나(1995)는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소득, 토지자산, 금융자산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은 소득탄력성, 토지자산탄력성, 금융자산탄력성의 순서를 보이고 있었다. 지출비목별로 보았을 때 소득탄력성은 교통통신, 피복신발, 기타소비지출 비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토지자산탄력성은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기타소

비지출 비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Miller와 Montalto(1998)는 1990-94 CES를 사용하여 도시와 비도시 지역 노인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비교하였다. 총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도시지역 노인가계는 도시지역 노인가계의 79%에 불과하였고, 일인당 소비지출액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2%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인종, 주택소유여부, 취업여부, 도시지역거주 등이 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액과 일인당 소비지출액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계일수록 연간 총소비지출액수는 더 많았고, 비도시에 거주할수록 총소비지출액수는 더 적었다.

McConnel과 Deljavan(1983)은 은퇴가계와 비은퇴가계의 소비패턴을 연구하였는데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연령, 거주지역, 자산액수가 대부분의 비목별 지출액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연령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항상소득은 모든 비목별 지출액수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성영애와 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가계소비지출 관련요인들을 비교분석 하였는데, 노인가계의 경우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총소비지출은 광열수도비만 제외하고 모든 비목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 및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비목의 소비도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을 자가로 소유한 노인가계의 경우 그렇지 못한 노인가계보다 주거비와 광열수도비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ubin과 Koelln(1996)은 1980-81, 1989-90 CES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필수재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항상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주택소유상태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재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노인가계의 경우 항상소득의 증가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지출은 감소하고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였고,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그렇지 못한 가계보다 식료품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았고 주거비 지출은 적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항상소득 또는 소득, 자산액수, 도시거주, 주택소유권 등이 소비지출합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가계를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했을 경우, 즉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취업상태에 따른 구분, 도시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 등을 하여 소비지출행태를 분석하는 경우에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태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더욱 유용할 수 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이다. 통계청에서 5년을 단위로 실시하는 본 자료는 전국 비농가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 연간소득, 저축, 부채, 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관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이다. 분석 대상가구는 주요지표 따라 층화 추출한 30,000 가구를 목표로 하였으며, 가계수지부분은 10월과 11월 동안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 밖의 자료는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하였다 (통계청, 1997).

일반적으로 노인가계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55세, 60세, 65세가 구분기준으로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통계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정년퇴직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60세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통계청, 2001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가계로 정의하였으며 사용된 총 연구대상자 수는 3,694가계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체 대상자를 가구주의 배우자 유무와 가족원수에 따라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로 구분하였다. 즉 노인독신가계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가계를 의미하고 노인부부가계는 다른 가족원 없이 노인부부만 사는 가계를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는 각각 1,828가계, 1,866가계였다.

#### 2. 분석방법 및 절차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중복로그(Double Log)모형이 다른 형태의 소비함수보다 가계지출을 설명하거나 추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소비관련 여러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Rubin & Koelln, 1996; Yuh,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중복로그 모형을 이용하였다.

$$\ln C_i = b_0 + b_1 \ln Y + b_2 \ln NW + b_3 AGE + b_4 NOWORK + b_5 HIGH + b_6 COLL + b_7 GRAD + b_8 CITY + b_9 OVER + e_i$$

여기서  $\ln C_i$ 는  $i$ 번째 소비항목에 대한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자연대수값이며,  $\ln Y$ 는 가계의 월평균소득의 자연대수값이다. 그리고  $\ln NW$ 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수의 자연대수값이며,  $AGE$ 가 가구주 연령을 나타내고  $NOWORK$ 은 가구주의 취업상태로서 현재 취업하지 않은 무직상태를 기준집단으로 사용하였다.  $HIGH$ 는 가구주의 최종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교 졸업인 집단을, COLL은 대학교 졸업인 집단을, GRAD는 대학원 이상인 집단을 각각 나타내고 기준집단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을 사용하였다. CITY는 거주지역이 도시이나 아니냐를 나타내주는데 기준집단은 도시거주자계이며, OVER는 총가계지출액수가 소득을 넘어서는 과소비가계인가 아닌가를 나타내주는데 기준집단은 과소비가계로 처리하였다.

위의 모형은 OLS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며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두 집단에 대해서 소비항목별로 각각 추정되었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항목별 소비지출액수에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PC 6.12 ver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가구주 연령은 노인독신가계가 70세, 노인부부가계가 68세로 노인독신가계가 약 2세 정도 더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노인부부가계가 1,242,748원으로 노인독신가계의 415,040원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자산액수는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53,039,765원,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22,875,848원으로 노인부부가계가 약 2.3배가 더 많았으며,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총자산의 75%가 주택자산(17,178,511원)이었다. 한편 금융자산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19,858,781원,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5,697,337원으로 노인부부가계가 노인독신가계보다 약 3.5배나 더 많았다. 노인부부가계의 총부채도 3,212,478원으로 노인독신가계(941,207원)보다 많았으며, 순자산도 노인부부가계가 약 2.3배 정도 많았다.

노인부부가계의 47%가 취업하고 있었던 반면에 노인독신가계는 단지 23%만이 취업하고 있었다. 노인독신가계의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노인부부가계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독신가계의 93%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겨우 2%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1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도 23%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상태에서는 노인부부가계의 82%가, 노인독신가계의 60%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노인독신가계의 20%는 전세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월세도 13%나 되었으며 노인부부가계의 경우는 5%에 불과하였다. 노인부부가계의 44%와 노인독신가계의 3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각각 35%와 31%가 소득보다 더 많은 가계지출을 하고 있었다.

<표 1>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부부가계 (n=1,828)	노인독신가계 (n=1,866)	T Chi square		부부/독신	
가구주 연령(세)	67.58	70.43	-13.52	***	0.96	
월평균소득(원)	1,242,748	415,040	21.09	***	2.99	
총자산(원)	53,039,765	22,875,848	16.80	***	2.32	
금융자산	19,858,781	5,697,337	12.44	***	3.49	
주택자산	33,180,984	17,178,511	14.51	***	1.93	
총부채(원)	3,212,478	941,207	4.31	***	3.41	
순자산(원)	49,827,287	21,934,641	15.82	***	2.27	
취업상태(%)	취업 비취업	47.26 52.74	22.51 77.49	249.57	***	2.1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60.39 22.76 14.88 1.97	93.25 4.29 2.04 0.43	563.96	***	0.65 5.31 7.29 4.58
주택소유상태(%)	소유 전세 월세 기타	81.84 10.39 5.14 2.63	60.45 20.15 12.86 6.54	208.40	***	1.35 0.52 0.40 0.40
거주지역(%)	도시 비도시	43.76 56.24	35.26 64.74	27.93	***	1.24 0.87
소비행태(%)	소비>소득 소비≤소득	34.52 65.48	31.24 68.76	4.49	*	1.10 0.95

\* p<.05, \*\* p<.01, \*\*\* p<.001

## 2.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 특성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비목별 월평균소비지출액은 <표 2>에 비교되어 있다. 노인부부가계의 월평균소비지출액은 902,742원, 노인독신가계는 356,156원으로 노인부부가계가 약 2.5배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비목별로 살펴보면 주거비를 제외하고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다른 모든 비목의 월평균지출액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비목은 외식비였는데 노인부부가계가 노인독신가계에 비해서 6.4배 정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목은 교육비로서 노인부부가계가 약 5.3배 많았고,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도 각각 3.4배 정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광열수도비도 그 차이가 적어서 노인부부가계가 노인독신가계에 비해 약 1.7배 정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표 2>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 항목별 월평균지출액

소비지출항목	노인부부 가계	노인독신 가계	T		부부/독신
총소비지출	902,742	356,156	20.30	***	2.53
식료품	214,079	95,081	21.03	***	2.25
외식	47,968	7,495	9.80	***	6.40
주거	43,598	34,502	1.50		1.26
광열수도	67,050	39,092	13.47	***	1.72
가구집기,가사용품	38,695	19,338	3.77	***	2.00
피복,신발	48,224	15,079	9.56	***	3.20
보건의료	100,356	33,030	10.21	***	3.04
교육	914	172	4.07	***	5.31
교양오락	31,346	9,163	5.63	***	3.42
교통,통신	73,666	21,446	12.10	***	3.43
기타소비지출	230,152	79,673	11.07	***	2.89

\* p<.05, \*\* p<.01, \*\*\* p<.001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비목별 월평균소비지출액의 구성비는 <표 3>에 비교되어 있다. 지출액수와는 달리 지출구성비의 비교결과에서는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의 세가지 비목이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가지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들 중에서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간에 구성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비목은 외식비로서 노인부부가계가 전체 지출액의 4%를, 노인독신가계가 2%를 소비하고 있어 2배의 차이가 났다. 또한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즉 비필수재에서는 노인부부가계가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었고,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즉, 필수재에서는 노인독신가계가 더 많은 비중의 지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에서는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가 동일한 비중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표 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소비지출항목	노인부부 가계	노인독신 가계	T		부부/독신
총소비지출	100%	100%			
식료품	0.31	0.34	-6.12	***	0.91
외식	0.04	0.02	11.58	***	2.00
주거	0.04	0.06	-5.36	***	0.67
광열수도	0.11	0.15	-9.55	***	0.73
가구집기,가사용품	0.03	0.03	0.57		1.00
피복,신발	0.04	0.04	1.83		1.00
보건의료	0.10	0.08	3.91	***	1.25
교육	0.00	0.00	2.10	*	-
교양오락	0.02	0.02	2.00	*	1.00
교통,통신	0.08	0.07	1.30		1.14
기타소비지출	0.22	0.17	8.86	***	1.29

\* p<.05, \*\* p<.01, \*\*\* p<.001

## 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함수

더블로그 소비함수 모형을 사용한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함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Chow-test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총소비지출함수를 포함한 모든 비목의 소비지출함수는 두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소비항목별 소비지출함수의 결과를 특징적인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총소비지출

우선 소득의 증가는 총소비지출을 증가시켰는데 그 영향력은 노인독신가계의 경우가 더 컸다. 순자산의 증가는 노인부부가계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총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연령은 두 집단 모두에서 부적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를 불문하고 총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총소비지출액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의 과소비 행동은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 모두 총소비지출을 증가시켰는데 그 영향력은 노인독신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2) 식료품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월소득과 과소비행동은 대표적인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지출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지출은 증가했는데 그 영향력은 노인독신가계의 경우가 더 컸고, 과소비 행동 또한 식료품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순자산, 가구주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 도시거주자였는

데, 순자산의 증가는 식료품비의 지출액수를 증가시켰고, 가구주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계에 비해 더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거주가가계가 비도시거주가가계보다 식료품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독신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가계였는데,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독신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은 감소하였고 가구주가 중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에 비해 대학원 학력을 가진 가계는 식료품비 지출을 더 적게 하고 있었다.

3) 외식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외식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는 월소득과 가구주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 도시거주가가계, 과소비 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의 증가는 외식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가구주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외식비도 증가하였는데 교육수준의 효과는 노인독신가계의 경우가 노인부부가계보다 더 컸다. 또한 도시거주가가계의 경우가 비도시거주가가계보다 외식비 지출이 컸으며, 과소비 행동도 외식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과소비 행동의 효과는 노인부부가계의 경우가 노인단독가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순자산의 증가는 외식비를 증가시켰고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식비는 감소하고 있었다. 노인

독신가계의 경우는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무직인 경우 외식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었다.

4) 주거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단독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월소득, 순자산, 가구주 교육수준, 도시거주, 과소비 행동이었다.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거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은 노인독신가계의 경우가 더 컸으며,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주거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 지출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가구주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노인독신가계의 경우가 더 컸다.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일수록 주거비 지출은 증가하였는데 노인부부가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했으며, 과소비 행동을 하는 가계일수록 주거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독신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광열수도

광열수도비 지출의 경우도 월소득과 순자산, 과소비 행동이 두 집단의 소비지출함수 결정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과소비 행동을 하는

<표 4>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함수(1)

독립변수	총소비지출				식료품				외식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ln(월소득)	0.5184	***	0.8362	***	0.2983	***	0.6260	***	1.6073	***	1.7965	***
ln(순자산)	0.0319	***	0.0011		0.0241	**	0.0065		0.1522	***	-0.0126	
연령	-0.0119	***	-0.0116	***	-0.0055		-0.0204	***	-0.0579	**	-0.0232	
무직	0.0068		0.0510		-0.0461		0.1004		-0.2905		-0.6150	**
교육수준												
고등학교	0.0976	**	0.1295	*	0.0721		0.1294		1.1748	***	2.3929	***
대학교	0.2551	***	0.1695	*	0.1458	*	-0.2309		1.4542	***	4.6769	***
대학원	0.4521	***	0.2204		0.1005		-1.6367	***	1.1689		1.8424	
도시거주	0.0097		0.0143		0.1230	***	0.0694		0.4769	*	0.4064	*
과소비	0.7672	***	0.9379	***	0.4296	***	0.6524	***	1.7491	***	0.7991	***
상수	6.2090	***	2.1877	***	7.6628	***	4.0699	***	-15.5842	***	-18.1531	***
R <sup>2</sup>	0.6227		0.7068		0.1957		0.1683		0.1860		0.1906	
Chow-test (F)	41.17***				22.08***				6.23***			

\*p<.05, \*\* p<.01, \*\*\* p<.001

가계일수록 광열수도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계의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광열수도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지출에서 두 집단 소비지출함수의 공통된 결정요인은 월소득, 가구주가 무직인 가계, 가구주 학력이 고등학교인 가계, 도시거주가계, 과소비 행동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도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무직인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고, 가구주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와 도시거주 가계, 과소비 행동을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더 많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지출을 하고 있었다.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과소비 행동이 이 비목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노인부부가계에 비해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주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일수록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지출은 증가하였고, 노인독신가계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지출은 감소하였다.

7) 피복 및 신발

피복 및 신발비 지출의 경우, 월소득만이 두 집단 소비지출함수의 공통요인이었는데, 월소득의 증가는 피복 및 신발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가구주 학력이 피복 및 신발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가구주 학력이 증가할수록 피복 및 신발비 지출은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었다. 노인독신가계의 경우는 순자산의 증가와 연령의 증가는 피복 및 신발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었고, 과소비 행동은 피복 및 신발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보건의료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 모두에서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과소비 행동을 하는 가계일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가구주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계에 비해서 노인부부가계의 경우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반면 노인독신가계의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의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중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에 비해 대학원 학력을 가진 가계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었다.

<표 4>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함수(2)

독립변수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ln(월소득)	0.8797	***	1.1272	***	0.3182	***	0.5085	***	1.0187	***	1.5654	***
ln(순자산)	-0.1319	**	-0.1361	***	0.0423	***	0.0423	***	0.0812	*	-0.0326	
연령	-0.0119		-0.0773	***	0.0073		-0.0055		0.0143		-0.0563	***
무직	0.3798		-0.1662		0.1441	*	-0.0980		0.9626	***	0.8335	***
교육수준												
고등학교	0.7020	*	2.5816	***	0.0290		0.2430		0.8112	***	2.1032	***
대학교	0.9206	*	1.0501		0.1309		-0.7587	**	1.0487	***	0.4497	
대학원	4.4806	***	6.2917	***	0.2945		0.1443		1.1144		2.2371	
도시거주	1.2854	***	0.5596	*	-0.0824		-0.0014		0.3904	*	0.4482	*
과소비	1.4369	***	1.1852	***	0.2258	***	0.6261	***	0.4444	*	1.3744	***
상수	-6.5225	*	-4.5055		4.9197	***	3.0263	***	-10.0619	***	-11.1099	***
R <sup>2</sup>	0.0836		0.1094		0.0756		0.1273		0.0980		0.1411	
Chow-test(F)	3.34***				9.34***				5.90***			

\*p<.05, \*\* p<.01, \*\*\* p<.001



<표 4>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함수(3)

독립변수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ln(월소득)	0.9218	***	1.6282	***	1.0496	***	1.2177	***	0.2570	***	0.2922	***
ln(순자산)	0.0864		-0.0756	**	0.0312		0.0307		0.0347		-0.0591	***
연령	-0.0118		-0.0697	***	-0.0018		-0.0154		-0.0027		-0.0047	
무직	-0.4124		0.1722		0.6743	**	0.2363		0.2348	*	0.0591	
교육수준												
고등학교	1.1698	***	0.5539		-0.3349		-0.6578		0.2362		1.0728	***
대학교	2.2119	***	1.0739		-0.7574	*	1.9187	**	0.3005		0.7315	***
대학원	2.6776	**	-0.6745		-1.7893	*	1.8001		1.3809	***	-0.5447	
도시거주	0.3094		0.4360		-0.2041		0.3266		-0.0275		-0.0061	
과소비	0.4348		1.1373	***	1.6195	***	1.7412	***	0.1272		0.2350	***
상수	-7.7790	**	-10.8604	***	-6.5217	**	-8.8826	**	-3.5270	**	-2.3933	**
R <sup>2</sup>	0.1010		0.0976		0.0656		0.0816		0.0337		0.0855	
Chow-test(F)	2.73**				7.13***				4.66***			

\* p<.05, \*\* p<.01, \*\*\* p<.001

9) 교육

교육비 지출에서도 월소득만이 두 집단 소비지출함수의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의 증가는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와 가구주가 대학원 학력을 가진 가계일 경우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었다. 노인독신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고, 가구주가 고등학교 학력이거나 대학교 학력인 가계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계에 비해서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독신가계의 과소비 행동은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교양오락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교양오락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월소득, 순자산,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무직인 가계, 과소비 행동이었다. 월소득이 증가하고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교양오락비는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무직인 가계일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과소비행동을 하는 가계일수록 교양오락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교양오락비 지출도 증가하였고,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교양오락비 지출을 감소시켰다.

<표 4>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함수(4)

독립변수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노인독신	
ln(월소득)	0.6000	***	1.3712	***	0.4783	***	1.1638	***	0.7952	***	1.5977	***
ln(순자산)	0.1290	***	0.1239	***	0.0444	***	0.0352	*	0.0856	***	-0.0057	
연령	-0.0111		-0.0690	***	-0.0435	***	-0.0679	***	-0.0556	***	-0.0873	***
무직	0.5464	***	0.4476	*	0.0617		0.2350		0.0327		0.2766	
교육수준												
고등학교	0.5708	***	0.4256		0.1876	**	0.3392		0.2526	*	-0.4682	
대학교	0.7933	***	-0.4428		0.5859	***	0.4277		0.4304	**	0.5469	
대학원	1.8133	***	1.3489		0.6965	***	-0.2056		0.5314		0.8856	
도시거주	0.0535		-0.2302		0.1166	*	-0.0771		-0.1094		-0.0680	
과소비	0.3587	***	0.4907	**	0.4788	***	0.6894	***	1.0573	***	1.3599	***
상수	-1.9087		-8.1736	***	5.7198	***	-1.9571		2.2962	*	-5.3275	**
R <sup>2</sup>	0.1642		0.1635		0.3756		0.2084		0.2385		0.2007	
Chow-test(F)	10.00***				14.52***				10.36***			

\* p<.05, \*\* p<.01, \*\*\* p<.001

## 11) 교통통신

두 집단의 교통통신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월소득, 순자산, 가구주 연령, 과소비 행동이었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 모두 월소득과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교통통신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가계가 과소비 행동을 하는 가계일수록 교통통신비 지출도 증가하였다. 노인부부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일수록 교통통신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었다.

## 12)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에는 담배, 이미용, 경조사, 회비, 장신구, 종교관계비 등이 포함되는데 노인부부와 노인독신 두 집단의 기타소비지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월소득, 가구주 연령, 과소비 행동이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연령이 감소할수록 기타소비지출은 증가하였고 과소비행동을 하는 가계일수록 기타소비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기타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었고, 가구주가 중학교 학력인 가계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을 가진 가계가 기타소비지출 영역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 4.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목별 소득탄력성과 자산탄력성

<표 5>는 위에서 제시된 <표 4>로부터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과 자산탄력성을 요약하고 두 집단의 탄력성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t-test 결과,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득탄력성은 모든 소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노인독신가계가 0.8, 노인부부가계가 0.5로 나타나 노인독신가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소비항목에 있어서 노인독신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노인부부가계의 소득탄력성 보다 더 컸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적게 나타난 소비항목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이었고, 노인독신가계의 경우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였다. 소득탄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소비항목은 두 집단 모두에서 외식비로 각각 1.6, 1.8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자산탄력성은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든 소비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총소비지출에 대한 자산탄력성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0.032,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0.001로서 노인부부가계가 더 컸다. 두 집단의 자산탄력성이 +로 나타난 소비항목은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였고, -로 나타난 소비항목은 주거비였으며, 나머지 항목은 자산탄력성의 부호가 두 집단간에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자산탄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소비항목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외식비로, 노인독신가계의 경우 주거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소비항목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자산탄력성은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자산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탄력성 계수의 부호는 소득탄력성의 경우 모두 일관성 있게 양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자산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혼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경우, 자산보다는 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강하고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과 자산탄력성

	소득탄력성				자산탄력성			
	노인부부	노인독신	t-test		노인부부	노인독신	t-test	
총소비	0.5184	0.8362	-552.27	***	0.0319	0.0011	232.07	***
식료품	0.2983	0.6260	-247.56	***	0.0241	0.0065	69.15	***
외식	1.6073	1.7965	-37.65	***	0.1522	-0.0126	136.44	***
주거	0.8797	1.1272	-43.85	***	-0.1319	-0.1361	3.18	***
광열수도	0.3182	0.5085	-120.91	***	0.0423	0.0423	0.00	
가구가사용품	1.0187	1.5654	-118.09	***	0.0812	-0.0326	109.16	***
피복신발	0.9218	1.6282	-126.49	***	0.0864	-0.0756	125.18	***
보건의료	1.0496	1.2177	-33.39	***	0.0312	0.0307	0.45	
교육	0.2570	0.2922	-17.50	***	0.0347	-0.0591	176.08	***
교양오락	0.6000	1.3712	-233.65	***	0.1290	0.1239	7.70	***
교통통신	0.4783	1.1638	-314.25	***	0.0444	0.0352	23.83	***
기타소비	0.7952	1.5977	-254.73	***	0.0856	-0.0057	146.78	***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소비패턴의 차이를 규명하고 두 집단의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함수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그 구성비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특히 월평균 소비지출액수면에서는 외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에서 두 집단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면에서도 외식비,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교통통신 등에서 두 집단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월평균 소비지출액수와 구성비 모두에서 대부분 비필수재에 속하는 비목에 있어서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함수는 총소비지출함수를 포함하여 총 12개가 도출되었는데, 그 결정요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부부가계의 소비지출함수에서는 소득, 교육수준, 과소비, 순자산, 무직, 도시거주, 연령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함수에서는 소득, 과소비, 연령, 순자산, 교육수준, 무직, 도시거주의 순이었다. 즉,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 모두에서 소득수준, 과소비행동, 순자산, 교육수준은 소비지출함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소득은 모든 소비지출함수에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갖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과소비행동도 거의 모든 소비지출함수에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순자산도 소비지출함수의 중요 결정요인이었는데 그 영향력은 비목에 따라 지출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주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계의 경우는 노인독신가계에 비해서 가구주의 취업상태와 도시거주 여부가, 그리고 노인독신가계의 경우는 노인부부가계에 비해서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계의 유형별, 소비지출 비목별 소비지출함수의 중요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정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개인적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 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대책마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는 노년기에 필요로 하게 되는 소비요구수준(consumption need)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소비지출함수의 결과는 노년기의 소비요구수준의 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노년기의 소비요구수준에 따라서 노후를 위한 자산축적의 규모가 결정되며, 은퇴전의 소비수준을 기초로 한 목표 소득대체율(TRR: Target Replacement Rate)의 정확한 산출은 공적, 사적 연금계획이나 연금정책의 입안시에 적절한 연금급여액의 산출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노년기의 소비요구수준의 정확한 산정은 노후재정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은 우선 노인가계는 동질적이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문제와 소비지출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으나 노인가계의 정의도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노인가계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성영애, 양세정, 1997;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 1996; Rubin & Koelln, 1996). 그런데 노인가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다양한 특성은 노인가계의 소비수준과 경제적 복지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특히 노년기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독신노인은 고령화와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심영, 2000). 따라서 노인소비자 혹은 노인가계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독신가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실버산업적 측면에서도 노인가계의 상품소비수요에 대한 분석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 중 하나는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가 될 것이다.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상태의 호전으로 인하여 노인들 가운데 병약해서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건강한 고학력 노인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소비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취업기회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욕구와 소비욕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향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아울러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미래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그 이외의 경제적 복지 관련 요소들, 즉 소득, 자산이나 부채현황, 실물소득 등은 간과하였다. 노인가계의 경우는 소득의 중단 및 감소로 인해 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유동자산, 실물소득 등이 그들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소비지출규모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노인가계의 요구소비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노인가계의 현재소비수준(current consumption needs)이 요구소비수준(desired consumption needs)과 항상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가용자원의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비수준을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

한 소비합수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요구소비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노후생계비의 정확한 산출과 나아가 은퇴재정설계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04월 28일  
 심사일 : 2003년 05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08월 23일

### 【참 고 문 헌】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3-235.
- 삼성경제연구소(2002.6.17).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삼성금융연구소(2000). 보험사의 헬스케어 비즈니스 진출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 성영애,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성지미,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심영(2000).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5.
- 양세정(2000). 노인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가을 심포지움*, 25-34.
- 양세정, 강미나(1995).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6(1), 57-67.
- 통계청(1998). 96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이용해설. 통계청 사회통계과.
- 통계청(2001a).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2001b). *장래인구추계*.
- DeVaney, S. A. (1995). How well off are older men and women: Evidence from the 1989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REEM Biennial*, 121-128.
- McConnel, C. E. & Deljavan, F. (1983). Consumption patterns of the retired household. *Journal of Gerontology*, 38(4), 480-490.
- Miller, C. J. & Montalto, C. P. (1998). *Family Economics and Nutrition Review*, 11(4), 19-30.
- Rubin, R. M. & Koelln, K.(1996). Elderly and nonelderly expenditures on necessities in the 1980s. *Monthly Labor Review*, 119(9), 24-31.
- Wang, H. (1995). Income and Expenditure Inequality of Elderly Households: An Analysis Using The Gini Coefficient.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179-184.
- Williams, F. L. & Zhou, H. (1997). Income and Expenditures in Two Phases of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1-8.
- Yuh, Y. (1998). *Adequacy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Mean and pessimistic case proje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부록> 소비지출 항목별 세목에 대한 정의

- 식료품비 : 곡류, 육류, 유란, 채소, 과일, 음료, 주류, 빵 및 과자류 등
- 외 식 비 : 식사대, 음주대, 학교급식, 기타외식
- 주 거 비 :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 광열수도비 :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등
-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 가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가사서비스
- 피복신발비 : 피복, 신발 및 관련서비스
- 보건의료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진료비 등 보건의료서비스
- 교 육 :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기타교육비, 문방구
- 교 양 오 락 : 신문, 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오락시설이용료 등 교양오락서비스
- 교 통 통 신 : 개인교통, 공공교통, 통신비
- 기 타 : 담배, 이미용, 경조사, 회비, 장신구, 종교관계비 등